

## “冬不藏精，春必病溫”의 개념 및 임상활용에 대한 고찰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殷哲玟\*

### A Study on the Concept and Clinical Application of “冬不藏精，春必病溫”

Eun Seok-min\*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Woosuk University

**Objectives** : The verse, “冬不藏精，春必病溫”， which had much influence, has been falsely referenced as contents of 『Neiji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is process, while looking at its theoretical meaning within clinical practice.

**Methods** : The origins of the concept “冬不藏精，春必病溫” are explained through annotations of 『Neijing』 and Li Dong Yuan(李東垣)’s interpretation of Shanghan(傷寒), while its clinical meaning is examined through theories of doctors’s who applied the concept in their practices.

**Results** : The beginning of “冬不藏精，春必病溫” could be traced back to Li’s annotation of the verse “冬傷于寒，春必病溫” from the 『Neijing』, where he based his understanding on the concept “少陰不藏.” Since then, the discourse on “冬傷于寒，春必病溫” has been replaced by “冬不藏精，春必病溫” as a new concept to explain the pathology of Wenbing(溫病). These discussions followed the line of thought that by failure to store Jing(精) during the winter, Cold pathogen would infiltrate, hiding itself in Shaoyin(少陰). Various arguments on how the Cold pathogen would develop into Wenbing and its treatment followed.

**Conclusions** : “冬不藏精，春必病溫” can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a new interpretation of “冬傷于寒，春必病溫” through the perspective of Cold pathogen infiltration based on “少陰不藏”.

**Key words** : Wenbing(溫病), Storing essence(藏精), Cold pathogen(寒邪), Neijing(內經)

\* Corresponding Author: Eun Seok-mi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Woosuk University. 443 Samnye-Rd, Wanju-Gun, Jeonbuk, ROK.

Tel: +82-63-290-1475, E-mail: eskmin@woosuk.ac.kr

Received(October 21, 2019), Revised(November 4, 2019), Accepted(November 4, 2019)

## 1. 서론

“冬不藏精, 春必病溫”은 溫病의 병인과 관련하여 역대 의가들에 의해 많이 다루어진 개념으로서, 『內經』을 그 출처로 하여 언급되곤 하였다. 그러나 사실 『內經』에서는 “冬不藏精, 春必病溫”이란 표현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素問·金匱真言論』에 “夫精者, 身之本也. 故藏于精者, 春不病溫.”이라 한 부분이 있을 뿐이다. 『素問·金匱真言論』의 이 내용은 溫病의 발생과 관련된 藏精의 문제를 겨울철에 특정한 것이 아니며, “冬不按蹠” 등을 언급한 그 전후 내용을 연결시켜 본다 해도 이를 바로 “冬不藏精, 春必病溫”의 의미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冬不藏精, 春必病溫”이 비록 『內經』에서 그 의미가 유도될 수 있고 또한 『內經』을 출처로 하여 언급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일정한 요인들을 통해 새롭게 『內經』의 설로 구성된 면이 있음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冬不藏精, 春必病溫”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그것과 “冬傷于寒, 春必病溫”과의 관계성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sup>1)</sup>, 이 같은 논의가 있는 것은 “冬不藏精, 春必病溫”이 “藏于精者, 春不病溫” 외에도 『內經』에서 말한 “冬傷于寒, 春必病溫”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생겨난 면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 의가들 중에는 “冬傷于寒, 春必病溫”을 이해함에 있어 겨울철의 寒邪의 침습 자체를 그 중심에 두지 않고 “冬不藏精”을 기초로 “冬傷于寒”을 이해하고자 했던 예들이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清代의 黃元御는 “冬傷于寒, 則冬不藏精之變文也.”<sup>2)</sup>라 하였고, 邵新甫도 “冬傷于寒, 春必病溫”의 주된 요지가 “冬不藏精”에 있다고 했던 것이다<sup>3)</sup>. 이 같은

논의들은 “冬不藏精, 春必病溫”이 “冬傷于寒, 春必病溫”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 제기된 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단지 『內經』의 내용을 기초로 寒邪에 의한 伏氣溫病 개념의 타당성을 밝힐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말하면서 “冬傷于寒”과 “冬不藏精”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곧 일부 의가들이 寒邪에 의한 伏氣溫病으로서의 “冬傷于寒, 春必病溫”을 부정하면서 이를 “冬不藏精, 春必病溫”으로 대체하려 했던 것에 대한 비판일 뿐이다. 따라서 “冬不藏精, 春必病溫” 그 자체의 이론적 의의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그 개념이 어떻게 새롭게 형성되고 어떤 임상적 의미를 지니온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문장에서는 “冬不藏精, 春必病溫”이 『內經』에서 말한 “藏于精者, 春不病溫” 및 “冬傷于寒, 春必病溫”과 어떤 관계성을 지니고 또 그 관계성이 실제로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며, 아울러 이후 그 개념이 구체적인 임상 이론으로 발전한 면들을 喻嘉言 등 주요 관련 의가들의 학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같은 내용들을 통해 “冬不藏精, 春必病溫”의 형성 및 전개 과정의 주된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溫病을 伏氣의 관점에서 바라본 의가들의 의학사상을 이해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冬不藏精, 春必病溫” 개념의 형성

### 1) 『內經』注解와 “冬不藏精, 春必病溫”

『內經』에는 본래 “冬不藏精, 春必病溫”이란 내용이 없지만 이는 분명히 『素問·金匱真言論』에서 말한 “故藏于精者, 春不病溫”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양자 간의 관련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王冰은 『素問·金匱真言論』의 “夫

1) 岳妍. 再論“冬傷于寒, 春必病溫”與“冬不藏精, 春必病溫”.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0. 16(9). / 江順奎. “冬傷于寒”非“冬不藏精”互文. 中醫雜誌. 2008. 49(12).  
 2) 黃元御. 傷寒懸解.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429.  
 3) 葉桂. 臨證指南醫案.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58. “冬傷于寒, 春必病溫者, 重在冬不藏精也. 蓋煩勞多欲之人, 陰精久耗, 入春則裏氣大泄, 木火內燃, 強陽無制, 燎原之勢, 直從裏發.”

精者, 身之本也. 故藏于精者, 春不病溫”에 대한 주석에서 “此正謂冬不按蹠, 則精氣伏藏, 以陽不妄升, 故春無溫病.”<sup>4)</sup>이라 하였는데, 이는 『素問·金匱真言論』에서 “故冬不按蹠, 春不鼽衄”이라 한 것에 대해 그가 겨울에 筋骨을 요동시키면 陽氣가 藏해지지 못한다고 주해한 것과 연결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sup>5)</sup>. 이는 “藏于精者, 春不病溫”에 대해 겨울에 按蹠를 하지 않음으로써 精氣를 藏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서, 겨울에 按蹠를 행하지 않는다면 筋骨을 요동시키지 않아 陽氣가 藏해질 수 있다는 관점을 지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王冰의 이 같은 주해는 결국 “藏于精者, 春不病溫”에서 “藏于精者”를 겨울철의 양생의 문제로 귀결시킨 것이며, 이를 사실상 “冬不藏精”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楊上善은 『太素』에서 “冬不按蹠”를 겨울철의 傷寒과 연결시켜 논하였는데, 즉 「陰陽雜說」중의 “故冬不按蹠, 春不病鼽衄, 春不病頸項”<sup>6)</sup>의 부분에 대해 겨울철에 무리하게 按蹠를 행하면 勞困함이 많아 腠理가 열리면서 寒氣를 불러들이게 된다고 해석하였다<sup>7)</sup>. 『太素』에서는 “冬不按蹠”가 精을 藏하는 문제와 연결되지 않고 傷寒의 발생과 연결되어 논해진 것이다. 精을 藏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陰陽雜說」에서 “冬不病痺厥浪泄, 而汗出藏於清者, 至春不病溫”<sup>8)</sup>이라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楊上善은 내부가 虛해지면서 寒氣가 들어오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였다<sup>9)</sup>. 이 같은 해석은 「陰陽大

論」에 등장하는 “冬傷於寒, 春必病溫.”<sup>10)</sup>에 대해 이를 腠理가 열리면서 寒氣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한 것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다만 한 가지 의문이 되는 점은 “藏于精者”로 되어 있지 않고 “藏于清者”로 되어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楊上善의 언급이 없다는 점인데, “清”자를 곧 “精”자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겨울에 精을 잘 藏하면 봄에 溫病을 앓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楊上善의 해석에서는 “藏于清者, 至春不病溫”이 ‘冬不藏精’의 의미가 되면서 “冬傷於寒, 春必病溫”과 연결되어 논해지는 셈이며, 이는 王冰이 “藏于精者, 春不病溫”과 “冬傷於寒, 春必病溫”을 연결시켜 해석하지 않은 것과 구분되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이상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王冰과 楊上善은 “冬不藏精, 春必病溫”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內經』에서 말한 “藏于精者, 春不病溫”을 겨울철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또한 이를 “冬傷於寒, 春必病溫”의 개념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 2) 李東垣의 “冬傷於寒, 春必病溫” 해석

『此事難知』에는 “冬傷於寒, 春必病溫”과 관련하여 腎水의 부족을 주된 발병요인으로 제시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 “運冬氣則少陰不藏, 腎氣獨沈.”이라 한 것과 『素問·金匱真言論』에서 “故藏于精者, 春不病溫”이라 한 부분이 그 주된 논거로 제시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31.

5)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31. “按, 謂按摩. 蹠, 謂如蹠捷者之舉動手足, 是所謂導引也. 然擾動筋骨, 則陽氣不藏, 春陽氣上升, 重熱熏肺, 肺通于鼻, 病則形之. 故冬不按蹠, 春不鼽衄, 鼽, 謂鼻中水出. 衄, 謂鼻中血出.”

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51.

7)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51. “夫冬傷寒氣在于腠理者, 以冬強勇按蹠, 多勞困, 腠理開, 寒氣入客. 今冬不作按蹠, 則無傷寒, 至春不患熱病鼽衄, 故春不病頸項者也.”

8)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51.

9)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51. “冬病痺厥浪泄內虛, 又因汗出, 寒入藏於內, 故至春病溫, 是為冬傷於寒, 春為溫病所由者也.”

10)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p.32-33. “重陰必陽, 重陽必陰, 故曰, 冬傷於寒, 春必病溫.”

1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33. “傷, 過多也. 冬寒, 陰也. 人於冬時, 溫衣熱食, 腠理開發, 多取寒涼以快其志者, 寒入腠理, 腠理遂閉, 內行藏府, 至春寒極, 變為溫病也.”

12) 王冰은 「陰陽應象大論」중의 “冬傷於寒, 春必病溫”에 대해 寒毒이 肌膚에 藏해졌다가 후에 溫病이나 暑病으로 발병한다고만 했을 뿐 “藏于精者, 春不病溫” 등을 함께 관련지어 언급하지 않았다.

“겨울에 寒에 상하면 봄에 반드시 溫病을 앓는다고 하였다. 대개 房勞가 과하거나 힘든 일이 많은 사람들이 腠理가 열리고 少陰이 藏해지지 못하면서 腎水가 마르는 탓에 병을 얻게 되니, 수가 없으면 봄에 木이 발생을 하지 못하여 溫病이 된다. 長夏의 때가 되면 強木이 長하는데 水의 源이 絶하는 까닭에 滋化를 하지 못하니, 이에 큰 熱病이 된다. 傷寒의 근원이 이와 같다. 「四氣調神論」에서는 이르기를 冬氣를 運하게 하면 少陰이 藏해지지 못해 腎氣가 홀로 沈하게 된다고 하였다. 廣成子는 이르기를 그대의 形을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대의 精을 요동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金匱眞言論」에서는 이르기를 무릇 精은 몸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精을 잘 藏하면 봄에 溫病을 앓지 않는다고 하였다. 注解에서는 이르기를, 겨울에 按蹻를 행하지 않으면 精氣가 伏藏하여 陽氣가 함부로 升하지 않으므로 봄에 溫病을 앓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經에 이르기를 몸을 함부로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한 滿함을 지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도 하였다. 또한 물이 열고 땅이 갈라지는 때에는 陽을 요동시키지 말라고 하였고, 피부를 泄하여 기가 함부로 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啓玄子는 말하기를, 腎水는 겨울에 왕성해지는데 (이 때) 夏습이 행하면 腎氣를 상하게 되며, 봄이 되어 木이 왕성해지면 水가 廢하게 되니, 이에 봄에 병을 앓게 된다고 하였다.”<sup>13)</sup>

『此事難知』는 王好古의 저작이지만 王好古가 그自序에서 밝혔듯이 상당 부분 李東垣의 의학사상을 담고 있는 저작이라 할 수 있으며<sup>14)</sup>, 이에 따라 “冬

傷于寒，春必病溫”에 대한 해석 역시 李東垣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에서는 “冬傷于寒，春必病溫”을 논함에 있어 겨울철의 寒邪의 침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으며, 少陰이 藏해지지 못하여 腎水가 부족해지는 것을 그 본질적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少陰이 藏해지지 못하여 腎水가 부족해지면 木이 제대로 발생을 하지 못하여 봄에 溫病이 되고, 長夏의 때가 되면 水의 源이 絶한 상태에서 強木이 長하면서 熱病이 된다고 하였다. 李東垣은 「金匱眞言論」의 “故藏于精者，春不病溫”을 「四氣調神大論」에서 말한 “運冬氣則少陰不藏，腎氣獨沈.”이란 부분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 셈이며, 이는 그가 “故藏于精者，春不病溫”에 대한 王冰의 주해를 따르는 한편으로 「四氣調神大論」의 내용을 통해 “少陰不藏”의 개념을 보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傷寒論·傷寒例』에서와 같이 겨울철에 寒毒이 들어온 후 바로 발병하지 않고 이후 봄이나 여름에 발병하게 된다는 伏氣 개념을 통해 溫病을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少陰不藏에 의한 腎水의 부족을 溫病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冬傷于寒，春必病溫”을 논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을 뿐 寒邪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이 다소 모호함을 남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李東垣은 또한 “冬傷于寒”과 관련하여 겨울에 寒하지 않고 溫한 것을 그 주된 배경요인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울에 寒에 상한다는 것은 겨울에 春습이 행하는 것이니, 마땅히 寒해야 하는데 溫하여 火가 勝하고 水가 虧하게 된다. 水가 이미 虧한 즉 勝하는 것이 妄行하게 되니, 土가 有餘하게 된다. 生하는 것이 병을 받으니, 木은 不足의 상태가 된다. 勝하지 못하는 것이 侮하게 되니, 火가 太過하게 된다. 火와 土가 合德하면 濕과 熱이 서로 도우므로 溫病이 되니, 사람들의 腠理가 열려 泄해지고 少陰이 藏하

13) 王好古. 此事難知.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22. “冬傷于寒，春必溫病。蓋因房室勞傷與辛苦之人，腠理開泄，少陰不藏，腎水涸竭而得之，無水則春木無以發生，故爲溫病。至長夏之時，時強木長，因絕水之源，無以滋化，故爲大熱病也。傷寒之源如此。」「四氣調神論」曰，運冬氣則少陰不藏，腎氣獨沈。廣成子云，無勞汝形，無搖汝精。『金匱眞言』曰，夫精者，身之本也，故藏于精者，春不病溫。注云，冬不按蹻，精氣伏藏，陽不妄升，故春不病溫。又經云，不妄作勞。又云，不知持滿。又云水冰地坼，無擾乎陽。又云，無泄皮膚，使氣亟奪。啓玄子云，腎水旺于冬，故行夏令則腎氣傷。春木王而水廢，故病于春也。”

14) 王好古. 此事難知.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15. “天其勤恤，俾我李公明之授子及所不傳之

妙，旬儲月積，浸就編帙，一語一言，美無可狀，始而終之，終而始之，卽無端之圍壁也。”

지 못하게 되며, 오직 房勞가 과한 이들이나 辛苦之人들이 이 병을 앓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들이 다 溫病이 된다.”<sup>15)</sup>

이 내용에 따르면 “冬傷于寒”은 겨울에 寒하지 않고 오히려 溫한 것이 그 배경이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水가 不足하고 火가 勝하게 되면서 결국 濕熱이 盛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이 같은 요인까지를 합해 생각해 볼 때 李東垣이 말한 “冬傷于寒”은 곧 겨울에 寒하지 않고 오히려 溫한 가운데 房勞가 과한 이들이나 辛苦之人들이 溫病을 주로 앓게 된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溫病과 관련하여 李東垣이 이 같은 주장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吳鞠通의 『溫病條辨』에서 溫毒에 대해 少陰이 虛한 사람인 경우 少陰이 위로 少陽과 교류하지 못하여 少陽의 相火가 치솟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는 한편 그 治法으로 李東垣의 普濟消毒飲이 주된 처방이 된다고 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sup>16)</sup>. 普濟消毒飲은 李東垣이 이른바 大頭瘟이 유행하던 당시에 창제한 처방으로서, 그가 大頭瘟과 같은 병들의 원인과 관련하여 腎水의 부족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朱丹溪는 『格致餘論』의 「陽有餘陰不足論」에서 1년 중 특히 火가 盛해지거나 잠복하는 시기에 섭생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했는데, 그 가운데 火가 잠복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에서 “冬不藏精, 春必病溫”을 언급하였다.<sup>17)</sup> 그 내용에 따르면 10월(亥),

11월(子)의 시기가 되면 火氣가 잠복하여 本然의 眞氣를 함양함으로써 봄에 發生之氣가 動하는 근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기에 섭생을 잘 하지 못하면 봄이 되어 陽氣가 상승할 때 하부의 근본이 虛한 까닭에 반드시 溫熱의 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같은 朱丹溪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李東垣의 주장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겨울철의 少陰不藏에 의한 溫病의 발생을 “冬不藏精, 春必病溫”으로 명확히 언급한 예라 할 수 있다. 아울러 『丹溪治法心要』에 따르면 朱丹溪는 溫病의 발생에 있어 “冬傷于寒”과 “冬不藏精” 간에 虛實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sup>18)</sup>, 이는 기존의 “冬傷于寒, 春必病溫”과 함께 “冬不藏精, 春必病溫”을 또 하나의 대등한 溫病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의 伏氣 개념의 “冬傷于寒, 春必病溫”을 부정하고 “冬不藏精, 春必病溫”만을 인정하는 의가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張景岳은 『質疑錄』에서 「傷寒例」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冬傷于寒, 春必病溫”은 겨울에 精을 藏하지 못한 상태에서 寒邪를 감축한 이후 봄이 되어 발병하는 것이라 하였다.<sup>19)</sup> 다만 張景岳의 저작에서는 기존의 伏氣 개념으로서의 “冬傷于寒, 春必病溫”을 말한 부분 역시 찾아볼 수 있으며<sup>20)</sup>, 이는 그에게 일

足, 故『內經』諄諄于資其化源也。古人于夏必獨宿而淡味, 兢兢業業于愛護也。保養金水二臟, 正嫌火土之旺爾。『內經』曰, 冬不藏精者, 春必病溫。十月屬亥, 十一月屬子, 正火氣潛伏閉藏, 以養其本然之真, 而爲來春發生升動之本。若于此時恣嗜欲以戕賊, 至春升之際, 下無根本, 陽氣輕浮, 必有溫熱之病。夫夏月火土之旺, 冬月火氣之伏, 此論一年之虛耳。

15) 王好古. 此事難知.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122. “冬傷于寒者, 冬行春令也, 當寒而溫, 火勝而水虧矣。水既已虧, 則所勝妄行, 土有餘也。所生受病, 木不足也。所不勝者侮之, 火太過也。火土合德, 濕熱相助, 故爲溫病, 使民腠理開泄, 少陰不藏, 惟房室勞傷, 辛苦之人得之, 若此者皆爲溫病。”  
16) 吳鞠通. 溫病條辨.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p. 38. “溫毒者, 穢濁也。凡地氣之穢, 未有不因少陽之氣而自能上升者。……人身之少陰素虛, 不能上制少陽, 少陽升騰莫制, 亦多成是證。……”  
17) 朱丹溪.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p.918-919. “天地以五行更疊衰旺而成四時, 人之五臟六腑亦應之而衰旺。四月屬巳, 五月屬午, 爲火大旺。火爲肺金之夫, 火旺則金衰。六月屬未, 爲土大旺, 土爲水之夫, 土旺則水衰。況腎水常藉肺金爲母, 以補助其不

18) 朱丹溪. 丹溪治法心要.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349. “夫溫病, 有冬傷于寒者, 有冬不藏精者, 明虛實之異, ……”

19) 張景岳. 質疑錄.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854. “自王叔和序『傷寒論』而曰, 中而卽病, 名曰傷寒, 不卽病者, 寒毒藏于肌膚, 至春變爲溫病, 夏至變爲暑病。暑病者, 熱極重于溫也。斯言出, 而後世醫者, 俱以春時之溫病, 由冬傷之寒而變, 夏月之暑病, 亦由冬傷之寒而變, 是溫病熱病, 皆因冬時受寒, 而至春夏以變焉者也。其言不大謬乎? 經云, 冬傷于寒, 春必病溫者, 蓋以冬時不藏精, 觸冒寒邪, 則春時必有溫病之症, 非以春時之溫病, 必自冬寒而變也。……大約冬傷于寒而卽病者, 曰傷寒, 冬不藏精而春病者, 曰溫病, 夏傷于暑而病熱者, 曰熱病。此三證本各以其時受病, 而非寒變爲溫變爲熱之謂也。”

20) 『景岳全書』에서는 「傷寒例」와 같이 겨울철에 寒毒에 상한

정한 관점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朱丹溪와 張景岳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冬不藏精, 春必病溫”은 “冬傷于寒, 春必病溫”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도출된 이후 그것이 기존의 “冬傷于寒, 春必病溫” 개념과 병존하거나 기존의 개념이 부정되고 “冬不藏精, 春必病溫”만이 인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다.

### 3. “冬不藏精, 春必病溫”의 임상적 적용

“冬不藏精, 春必病溫”은 그 개념이 이미 李東垣, 朱丹溪 등에 의해 언급되기 시작했다 해도 이를 구체적인 임상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은 喻嘉言을 비롯한 清代 의가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그 개념을 구체적인 임상이론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몇 갈래의 분기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冬不藏精”과 “冬傷于寒”의 관계를 비롯하여 그 실제적인 病機, 治法 등의 면에서 서로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冬不藏精, 春必病溫”을 실제 임상이론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한 의가로 볼 수 있는 喻嘉言과 이후 그의 영향을 받은 의가들의 설을 중심으로 그 임상적 적용과정을 살펴봄으로써 溫病學說에서 그 개념이 지니는 임상적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喻嘉言의 설에 나타난 “冬不藏精”과 ‘邪伏少陰’

##### (1) “冬不藏精”과 “冬傷於寒”의 구분

喻嘉言은 “冬不藏精, 春必病溫”에 대해 그 病機를 더욱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治法까지를 논함으로써 그 개념을 임상이론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의가라고 볼 수 있다. 그는 溫病을 기본적으로

후 봄, 여름이 되어 溫病, 熱病이 발한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張景岳. 景岳全書,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45. “其有冬時感寒, 不即病者, 寒毒藏于營衛之間, 至春夏變時, 遇風寒則邪氣應時而動, 故在春則爲溫病, 在夏則爲暑病. 是以辛苦之人, 春夏多溫熱病者, 皆由冬時觸寒所傷, 隨氣傳變, 本非即病之正傷寒之屬.”

伏氣溫病의 관점에서 다루면서 「傷寒例」 아래의 伏氣 개념으로서의 “冬傷於寒, 春必病溫”과 이후 새롭게 도출된 “冬不藏精, 春必病溫”을 모두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尙論後篇』에 따르면 喻嘉言은 溫病의 병인을 “冬傷於寒”과 “冬不藏精” 및 이 둘이 합해진 경우의 셋으로 나누었는데<sup>21)</sup>, 이 같은 관점은 溫病의 병인을 결국 “冬傷於寒”과 “冬不藏精”의 두 요소를 통해 보는 것이며, 이 가운데 “冬傷於寒”의 경우는 邪氣가 肌膚에 藏하고 “冬不藏精”의 경우는 邪氣가 陰臟에 藏한다고 하였다.<sup>22)</sup> 여기서 “冬不藏精”의 경우 邪氣가 陰臟에 藏한다고 하는 것은 곧 邪氣가 少陰腎經에 藏한다는 것으로서<sup>23)</sup>, “冬不藏精”의 경우에 있어 寒邪가 들어와 藏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冬不藏精”에 의한 溫病에 대해 喻嘉言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대개 精이 動하면 關門이 열리면서 氣가 泄하니, 겨울에 關門이 열려 氣가 泄하면 寒風이 이를 타고 들어오게 된다. 關門이 더욱 열릴수록 氣도 더욱 泄하게 되면서 寒風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腎은 閉藏을 주관하는 것으로서, 이 때문에 賊을 자식으로 여기게 되고 賊도 또한 나갈 수 있는 문이 없게 되어 서로 그대로 얽혀 있다가, 봄이 되어 地氣가 상승하여 肝木이 用事하게 되면 肝이 疏泄을 주관하고 木은 風을 주관하므로 이로부터 腎의 邪氣를 끌어내니, 꿈틀꿈틀 안에서 動하면서 그 家寶를 겁탈하게 된다. 그런데 邪氣가 이미 깊게 들어와 있어 빨리 나가지 않고 단지 어지러워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되고, 그 熱이 나는 것이 다 骨髓 쪽에 있어 스스로 매우 심한 熱을 느끼지만 만져보면

21) 喻嘉言. 尙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162. “內經云, 冬傷於寒, 春必病溫. 此一大例也, 又云冬不藏精, 春必病溫, 此一大例也, 既冬傷於寒, 又冬不藏精, 至春月同時病發, 此一大例也.”

22) 喻嘉言. 尙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162. “蓋冬傷於寒, 邪藏肌膚, 即邪中三陽之謂也, 冬不藏精, 邪入陰臟, 即邪中三陰之謂也.”

23) 喻嘉言. 尙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182. “冬傷於寒者, 陽分受邪, 太陽膀胱經主之, 冬不藏精者, 陰分受邪, 少陰腎經主之.”

손이 뜨거울 정도는 아니며, 表에서 발산시키는 법을 쉽게 쓴다면 땀만 날 뿐 邪氣는 나가지 않고 헛되이 津液을 상하면서 위태롭게 될 뿐이니, 그 증후가 ‘冬傷於寒’의 경우에 비해 배가 중하다.”<sup>24)</sup>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겨울에 精이 動하면 氣가 泄하면서 寒風이 이를 타고 들어오게 되며, 寒風이 들어와 藏하게 되는 곳은 腎이다. 寒風은 腎에 藏해져 있다가 봄이 되어 風이 動하기 시작하면 이를 따라 안의 骨髓로부터 熱이 발열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寒風이 腎에 藏해져 있으면서 점차 熱로 化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땀을 내는 治法을 쓴다면 헛되이 津液을 상하여 위태로움을 초래할 뿐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발열의 형태에 대해 스스로 매우 심한 열을 느끼지만 만져보면 손이 뜨거울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듯이, “冬不藏精”의 경우는 “冬傷於寒”의 경우와 분명히 다른 증후를 보여주는 것이다. 喻嘉言은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耳輪 상하에 이미 먼저 열이 있으며, 처음 열이 날 때 약간 惡寒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 口渴도 그다지 심하지 않다는 것이 “冬傷於寒”과 다른 점이라 하였다. “冬傷於寒”의 경우는 발병 초기에 惡寒이 없고 口渴이 심하지만, “冬不藏精”의 경우는 약간 시간이 지나야만 惡寒이 없어지면서 口渴이 심해진다고 본 것이다.<sup>25)</sup>

## (2) “冬不藏精”과 ‘邪伏少陰’

이상과 같이 喻嘉言은 “冬不藏精”에 의한 溫病의

증후가 “冬傷於寒”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는 한편, 『內經』과 『傷寒論』에서 “冬不藏精”의 病機 및 증후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먼저 『內經』을 통해서는 寒邪가 少陰으로 藏하게 되는 이치를 말하고자 하였는데, 『內經』에서 말한 溫瘧의 병기가 “冬不藏精”의 예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溫瘧은 겨울에 寒氣가 腎에 藏하였다가 이후 큰 더위를 만나면 痰과 함께 발출되는 것으로서, 겨울에 寒氣가 들어와 腎에 藏한다는 개념이 이미 『內經』에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26)</sup>

그리고 『傷寒論』에서도 조문들 가운데 “冬不藏精”의 예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찾아냈는데, 특히 『傷寒論』 太陽病 내용에 등장하는 風溫을 “冬不藏精”의 예로 제시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傷寒論』에서 風溫에 대한 내용은 “太陽病, 發熱而渴, 不惡寒者”를 溫病이라 한 부분에 이어 제시되고 있으며, “若發汗已, 身灼熱者, 名曰風溫. 風溫爲病, 脈陰陽俱浮, 自汗出, 身重多眠睡, 鼻息必鼾, 語言難出, 若被下者, 小便不利, 直視失溲, 若被火者, 微發黃色, 劇如驚癇狀, 時瘈瘲, 若火熏之, 一逆尚引日, 再逆促命期.”라고 하였다. 이 風溫의 병기에 대해 喻嘉言은 기본적으로 熱邪가 오랫동안 少陰腎에 쌓여 있으면서 精水를 손상시킨 것이 바탕이 된다고 하였으며, “脈陰陽俱浮, 自汗出, 身重多眠睡, 鼻息必鼾, 語言難出” 등의 風溫의 증후가 모두 少陰의 本證이라 하였다.<sup>27)</sup>

24) 喻嘉言. 尙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173. “蓋以精動, 則關閉而氣泄, 冬月關閉氣泄, 則寒風得入之矣. 關屢開, 氣屢泄, 則寒風屢入之矣. 而腎主閉藏者, 因是認賊作子, 而賊亦無門可出, 彌甚相安, 及至春月, 地氣上升, 肝木用事, 肝主疏泄, 木主風, 加是吸引腎邪, 勃勃內動, 而劫其家寶矣. 然邪入既深, 不能遽出, 但覺憤憤無奈, 其發熱也, 全在骨髓之間, 自覺極熱, 而捫之反不烙手, 任行表散, 汗出而邪不出, 徒傷津液, 以取危困, 其候比之冬傷於寒一例, 則倍重矣.”

25) 喻嘉言. 尙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175. “昌按熱邪久伏腎中, 其證與第一例自不相同, 其發熱也, 皆從骨內鬱蒸而出, 皮間未熱, 而耳輪上下, 已先熱矣, 始發之時, 多兼微寒, 不似第一例之全不惡寒, 以少陰居北方寒水之位也, 及至大熱灼肌, 多不惡渴, 不似第一例之大渴, 以熱邪初動, 而陰精尚足持之也, 其後則不惡寒而惡渴, 與第一例之證, 渾無別矣.”

26) 喻嘉言. 尙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p.174-175. “客有難昌者曰, 內經論冬傷於寒, 寒毒藏於肌膚, 感春月之溫氣始發, 故名曰溫病, 未嘗言寒毒感藏於骨髓, 今謂冬不藏精者, 寒邪藏於骨髓, 或未盡然耶, 昌應之曰, 此正內經之言, 非余之臆說也, 黃帝問溫瘧, 舍於何臟, 岐伯曰, 溫瘧得之冬中於風, 寒氣藏於骨髓之中, 至春則陽氣大發, 邪氣不能自出, 因遇大暑, 腦髓燦, 肌內消, 腠理發泄, 或有所用力, 邪氣與汗皆出, 此病藏於腎, 其氣先從內出之於外也, 如是者陰虛而陽盛則熱矣, 衰則邪氣復反入, 入則陽虛, 虛則寒矣, 故先熱而後寒, 名曰溫瘧, 由是觀之, 溫瘧且然, 而況於溫病乎, 客始唯唯.”

27) 喻嘉言. 尙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p.173-174. “其曰發汗已, 身灼熱者, 名曰風溫, 風溫爲病, 脈陰陽俱浮, 自汗出, 身重多眠睡, 鼻息必鼾, 語言難出, 若被下者, 小便不利, 直視失溲, 若被火者, 微發黃色, 劇如驚癇狀, 時瘈瘲, 若火熏之, 一逆尚引日, 再逆促命期,

이와 같이 風溫의 증후들을 少陰의 本證으로 보면서 “冬不藏精”의 예로 제시하였듯이, 喻嘉言은 또한 『傷寒論』 少陰病篇의 일부 조문들 역시 “冬不藏精”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그가 少陰病篇에서 “冬不藏精”의 예로 제시한 조문은 두 개인데, “少陰病, 欲吐不吐, 心煩但欲寐, 五六日, 自利而渴者, 虛故引水自救, 口燥舌乾證具, 小便色反白者, 下焦虛, 有寒也, 勿認爲熱以致誤.”<sup>28)</sup>라 한 부분과 “病人脈陰陽俱緊, 反汗出者, 亡陽也, 此屬少陰, 法當咽痛而復吐利.”<sup>29)</sup>라 한 부분이다. 이와 같이 『傷寒論』의 少陰病篇에서 “冬不藏精”의 예로서 조문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은 “冬不藏精”의 증을 少陰病의 틀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그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喻嘉言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冬不藏精”을 ‘邪伏少陰’과 연결시키고 그 증후를 少陰病의 틀에서 설명하는 문체와 관련하여 그가 『內經』, 『傷寒論』 이외의 다른 문헌이나 기존 의가들의 傷寒學說을 참고한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단 伏氣學說의 발전과정에서 ‘邪伏少陰’ 개념이 등장한 맥락을 주목해 볼 때, 宋代에 들어 傷寒學說에 대한 연구가 심화된 이래로 熱病의 발생에 있어 伏氣가 少陰에 있을 수 있음을 처음 언급한 의가는 龐安時로 알려져 있다.<sup>30)</sup> 그는 『傷寒總

病論』에서 非時之氣로서의 暴寒의 毒氣가 少陰經에 伏하게 된다고 하였고, 처음에는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가 이후 시일이 지나 脈이 微弱해지면서 喉痛, 下利 등이 차례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喉痛에는 半夏桂枝甘草湯을 쓰고 下利에는 通脈四逆湯을 쓴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伏氣를 예로부터 腎傷寒이라 했다고도 하였다.<sup>31)</sup> 이와 같은 伏氣의 개념은 사실 『傷寒論』의 「平脈法」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伏氣로 인해 咽痛과 下利가 있게 된다고 한 점이 龐安時가 말한 바와 같음을 볼 수 있다<sup>32)</sup>. 다만 龐安時는 그 伏氣의 성격이 非時之氣로서의 暴寒에 의한 것이며 그 잠복하는 부위가 少陰經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달랐던 것이다. 이와 같은 伏氣의 개념은 이후 朱肱, 郭雍 등에 의해서도 계승되었는데, 이들 의가들은 이를 咽喉痛 또는 少陰經證治와 관련하여 다루었다. 朱肱은 咽喉痛에 陰陽의 證이 있음을 논하면서 이를 陽毒, 少陰證, 伏氣에 의한 것으로 나누었는데<sup>33)</sup>, 이는 咽喉痛의 陰證을 亡陽에 의한 少陰證과 伏氣가 少陰에 있는 경우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郭雍 역시 少陰經證治를 논하면서 朱肱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였다<sup>34)</sup>.

p.91.

- 31) 龐安時. 傷寒總病論.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0. p.270. “龐曰, 伏氣之病, 謂非時有暴寒而中人, 伏毒氣于少陰經, 始雖不病, 旬月乃發, 便脈微弱, 法先喉痛似傷, 次則下利. 喉痛半夏桂枝甘草湯主之. 下利有諸證, 用通脈四逆湯主之. (方在少陰證中) 此病三二日便達, 古方謂腎傷寒是也.”
- 32) 成無己. 注解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17. “師曰, 伏氣之病, 以意候之, 今月之內, 欲有伏氣. 假令舊有伏氣, 當須脈之. 若脈微弱者, 當喉中痛似傷, 非喉痹也. 病人云, 實咽中痛. 雖爾, 今復欲下利.”
- 33)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p.233-234. “咽喉痛有陰陽二證. 脈浮數, 面赤斑斑如錦文, 咽喉痛, 唾膿血者, 此陽毒也. 脈沈遲, 手足厥冷, 或吐利而咽中痛, 此少陰證也. 『病源』云, 此爲下部脈都不至, 陰陽隔絕, 邪客于足少陰之絡, 毒氣上衝, 故咽喉不利, 或痛而生瘡也. 傷寒脈陰陽俱緊, 及汗出者, 亡陽也, 此屬少陰, 法當咽痛而復吐利, 此候汗下煎髮俱不可. 汗出者, 本粉敷之, 咽喉痛者, 甘草湯, 桔梗湯, 豬膚湯, 半夏散, 通脈四逆去芍藥加桔梗湯, 麻黃升麻湯可選而用之. 又有伏氣之病, 謂非時有暴寒中人, 伏氣于少陰經, 始不覺病, 旬月乃發, 脈微弱, 法先咽痛, 似傷寒, 非喉痹之病, 次必下利, 始用半夏桂枝甘草湯, 次四逆散主之. 此病只一二日便達, 古方謂之腎傷寒也.”
- 34) 郭雍. 傷寒補亡論.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1.

此一段 至理, 千古若明若昧, 未經剖晰, 全不思既名溫病, 卽是時行外感, 何又汗之下之火之, 俱爲逆耶. 蓋熱邪久蓄少陰腎中, 精水既爲素傷, 重加汗下火劫陰之法, 乃爲逆耳, 其自汗出身重多眠睡, 鼻息鼾, 語言難者, 一皆少陰之本證也, 膀胱爲腎之府, 故少陰證具, 若被下則膀胱之陰亦傷, 而直視失洩者, 腎精不上榮, 腎氣欲外奪也, 若被火劫, 則陰愈虧而邪愈無制, 甚則如驚癇狀, 而時爲瘈瘲也, 一逆再逆, 言汗下火之誤, 可一不可二, 非汗而又下, 而又汗之爲再誤也, 由此觀之, 冬不藏精之溫證, 顯然昭著矣, 昌之比例以分其治, 而仲景之道愈明矣, 奚罪耶.”

- 28) 이 조문을 “冬不藏精”의 예로 보면서 喻嘉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喻嘉言. 尚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178. “此一段因仲景原文難解, 昌會其意而言之也. 按冬不藏精之證, 此一段最肖, 仲景早已欲人辨識之矣.”
- 29) 이 조문을 “冬不藏精”의 예로 보면서 喻嘉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喻嘉言. 尚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178. “按: 冬不藏精之證, 此一段更肖, 少陰爲水臟, 吐利者陰盛而水無制也.”
- 30) 曹東義. 中醫外感熱病學史.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이와 같은 ‘邪伏少陰’의 개념은 非時之氣로서의 暴寒의 毒氣가 少陰經에 잠복하게 됨을 말한 것으로서, 寒邪가 少陰에 잠복한다는 점에서는 “冬不藏精”의 경우와 같지만 非時之氣로서의 暴寒과 “冬不藏精”에 따른 寒邪의 침습은 분명 다른 성격의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喻嘉言이 “冬不藏精”에 의한 溫病의 증후를 少陰病과 연결시켰다는 것은 少陰病이 일정 부분 伏氣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런 관점에서 龐安時 이래의 ‘邪伏少陰’ 개념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역시 喻嘉言이 ‘邪伏少陰’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尙論後篇』에서 風溫의 治法과 관련하여 언급한 ‘古律’이라 하는 것 역시 “冬不藏精”에 ‘邪伏少陰’ 개념이 더해지게 된 문헌적 근거가 아닌가 생각된다.<sup>35)</sup>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喻嘉言은 『傷寒論』에 등장하는 風溫을 “冬不藏精” 개념을 바탕으로 논하면서 이에 대해 溫經散邪의 治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그는 風溫의 治法이 少陰을 다스리는 것에 있음을 이른바 ‘古律’을 근거로 하여 제시하였으며, 여기에서 ‘古律’이라 하는 것은 『脈經』에서 찾아볼 수 있는 『醫律』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脈經』의 「病不可發汗證第一」에서는 『醫律』이란 문헌을 인용하면서 風溫과 濕溫에 發汗의 治法을 쓸 수 없음을 말하였고<sup>36)</sup>, 이

에 따르면 風溫은 그 治法이 少陰과 厥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醫律』에서 風溫의 治法이 少陰과 厥陰에 있다고 한 것은 喻嘉言이 風溫을 “冬不藏精”과 관련지으면서 이에 대해 溫經散邪의 治法을 주장하게 된 한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風溫의 治法이 少陰과 厥陰에 있다는 것에 대해 喻嘉言은 이를 “冬不藏精”으로 인해 寒邪가 少陰에 잠복하게 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 (3) “冬不藏精”에 의한 溫病의 治法

“冬不藏精”을 ‘邪伏少陰’과 연결시킴에 따라 喻嘉言은 그 治法 역시 기본적으로 『傷寒論』 少陰病 治法의 틀 안에서 찾고자 하였으며<sup>37)</sup>, 『傷寒論』에서 그 治法의 근거로 생각되는 조문들을 제시하였다. 喻嘉言은 『傷寒論』 太陽病篇에서 “病發熱頭疼, 脈反沈, 若不瘥, 身體疼痛, 當救其裏, 宜四逆湯.”이라 한 부분을 통해 仲景이 “冬不藏精”을 다스린 뜻을 잘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發熱과 頭疼의 表證이 있지만 脈은 도리어 沈한 경우의 治法을 논한 것이다.<sup>38)</sup> 조문 중에 “若不差”라 한 것은 “發熱頭疼, 脈

p.69. “又曰, 病人脈陰陽俱緊, 反汗出者, 亡陽也. 此屬少陰, 法當咽痛而復吐利. 常氏云, 可豬膚湯. 雍曰, 少陰有伏氣, 病亦如傷寒, 法先咽痛, 次必下利, 與前證相似, 古人謂之腎傷寒, 其病輕, 不傳經, 治法不可同. 咽痛則半夏桂枝甘草湯, 下利用四逆湯, 二三日即愈.”

35) 喻嘉言. 尙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212. “風溫證, 少陰冬不藏精, 與太陽病隨時忽至, 勢則病之八九矣. 風溫與風傷衛又不同. 中風其脈浮弱, 獨主太陽. 風溫其脈尺寸俱浮, 兼主太陽少陰. 腎水本當沈也, 風溫載之, 從太陽上入, 根本撥而枝葉繁矣. 春月木長勢強, 吸汲腎水, 已爲母虛, 加以風溫之病, 俄頃少陽相火, 厥陰風木, 風火熾然, 能無殆乎! 故‘若發汗已’四字, 包括錯誤, 見醫未病之先. 及得病之頃, 須診足太陽足少陰一腑一臟, 此千古獨傳妙訣也. 診之辨其有無伏氣. 有伏氣者, 冬寒太少二經久伏身中, 時當二月, 其脈先見露矣. 發則表熱太陽與裏熱少陰, 將同用事, 恣汗無忌, 灼熱反倍, 是爲風溫. 風溫表裏俱見浮脈, 其證自汗身重, 腎本病也. 多眠睡, 鼻息鼾, 語言難, 腎本病也. 腎中之候同時薦至, 危且殆矣. 古律垂成云, 風溫治在少陰, 不可發汗, 發汗死者, 醫殺之也.”

36) 王叔和. 脈經.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6. p.88. “傷寒有五, 皆熱病之類也. 同病異名, 同脈異經. 病雖俱傷于風, 其人自有痼疾, 則不得同法, 其人素傷于風, 因復傷于熱, 風熱相薄, 則發風溫, 四肢不收, 頭痛身熱, 常汗出不解, 治在少陰厥陰, 不可發汗. 汗出譫言獨語, 內煩, 躁擾不得臥, 善驚, 目亂無精, 治之復發其汗, 如此者醫殺之也. 傷寒濕溫, 其人常傷于濕, 因而中, 濕熱相薄, 則發濕溫. 病苦兩脛逆冷, 腹滿又胸, 頭目痛苦, 妄言, 治在足太陽, 不可發汗. 汗出必不能言, 耳聾, 不知痛所在, 身青, 面色變, 名口重, 如此者死, 醫殺之也. (上二首出『醫律』)”

37) 喻嘉言. 尙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175. “始先用藥深入腎中, 領邪外出, 則重者輕, 而輕者即愈矣. …… 即取仲景少陰傷寒之例, 推演爲治溫之例, 未嘗以己意混入一字也, 引例如左.”

38) 喻嘉言. 尙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176. “昌按, 此一段文義, 可得仲景治冬不藏精之奧旨, 病發熱頭疼, 證見於表矣, 而脈反沈, 則病又在裏矣, 兩有可疑也, 既發熱頭疼, 勢必先治其表, 若不瘥, 則治表無益矣, 凡治表者皆治其陽也, 陰病治陽, 豈惟無益, 將見陰中之眞陽, 因之外越, 而身體反加疼痛, 一團陰寒用事矣. 此所以當用四逆湯, 而急回其在經之陽也. 再按若不瘥三字甚活, 蓋發熱頭疼, 表之原不爲誤, 但一切三陽經表藥, 俱不對證, 惟麻黃附子細辛湯與麻黃附子甘草湯二方, 始爲少陰經對證之表藥, 而又不致必人之能用, 所以不說誤表, 而但說若不瘥,

反沈”의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治法을 행한 후 잘 낫지 않았음을 말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喻嘉言은 먼저 表를 다스리는 治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즉 陰病에 陽을 다스린 잘못을 범했다는 것인데, 이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陰 중의 眞陽이 밖으로 뜨면서 身痛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 하였다. 조문 중의 四逆湯은 바로 이와 같이 眞陽이 밖으로 뜨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처방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若不差”라 한 것은 發熱과 頭痛이 분명히 表證에 속하기 때문에 表證에 대한 治法을 쓴 것 자체는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喻嘉言은 麻黃附子細辛湯이나 麻黃附子甘草湯 같은 처방을 쓸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喻嘉言은 이 두 처방을 少陰經의 表藥이라 하였는데, 이는 發熱과 頭痛이 있다는 점이 太陽病 表證과 유사하지만 脈이 沈하다는 점을 少陰病 表證의 특성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傷寒論』 少陰病篇 중의 麻黃附子細辛湯과 麻黃附子甘草湯 조문에 대한 喻嘉言의 관점을 참고할 수 있으며, 喻嘉言은 이 두 처방이 지니는 治法상의 의미를 “溫經散邪”라 하였다. 먼저 麻黃附子細辛湯 조문을 보면 “少陰病，始得之，反發熱，脈沈者，麻黃附子細辛湯主之.”라 하였는데, 이는 少陰病이 처음 나타날 때 도리어 發熱과 같은 表證이 나타나는 한편으로 脈은 沈한 경우를 말한 것으로서, 결국 앞의 太陽病篇에서 發熱，頭痛，脈沈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를 少陰病이라 한 것이고, 이는 곧 少陰病이 太陽病 表證과 같은 양상을 보이며 나타나는데 단지 脈이 沈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喻嘉言은 邪氣가 表에 있다 해도 그 근원은 사실 裏에 있는 것으로서 裏의 邪氣가 表로 透達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證이 나타나는 것이며, 따라서 附子，細辛과 麻黃을 함께 쓰는 溫經散邪의 治法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sup>39)</sup>

正見表藥中原有療法也.”

39) 喻嘉言. 尙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175. “昌按, 脈沈, 病在裏也, 而表反發熱, 則邪雖在表, 而其根源實在裏, 在裏之邪, 欲其盡透於表, 則非溫經之藥不可故, 取附子細辛以匡麻黃, 爲溫經散邪.”

또한 麻黃附子甘草湯의 경우는 『傷寒論』에서 “少陰病，得之二三日，麻黃附子甘草湯微發汗，以二三日無裏證，故微發汗也.”라 하였는데, 이 조문에서는 少陰病 2~3일째에 裏證이 없다고 한 점에 주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裏證이 없다는 것에 대해 喻嘉言은 脈이 沈하고 눅기를 좋아하는 등의 證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吐利, 躁煩, 口渴 등의 證이 없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麻黃附子細辛湯證은 열이 나면서 脈이 沈하므로 表와 裏가 모두 급한 것이지만 麻黃附子甘草湯證은 表와 裏가 모두 급하지는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麻黃附子甘草湯證에도 역시 열이 나고 脈이 沈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麻黃附子細辛湯證만큼 급한 정도는 아님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麻黃附子細辛湯에서는 麻黃과 附子만으로는 부족하여 少陰引經과 辛散의 효능을 지닌 細辛을 가하는 것과는 달리, 麻黃附子甘草湯은 麻黃과 附子만으로 이미 힘이 충분하므로 細辛을 쓸 필요가 없이 甘草로 약성을 조화시킬 뿐이라 하였다.<sup>40)</sup>

결론적으로 喻嘉言은 冬不藏精으로 인한 溫病이 처음 발병한 후 2~3일 간에는 麻黃附子細辛湯이나 麻黃附子甘草湯을 써야 함을 주장한 것인데<sup>41)</sup>, 이는 冬不藏精으로 인한 溫病은 表證과 裏證이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邪氣가 裏로부터 表로 透達하는 것이므로 『傷寒論』의 少陰病 부분에서 볼 수 있는 溫經散邪의 治法을 쓸 수 있음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喻嘉言에 대한 비판: “所伏者少陰也, 所發者少陽也”

40) 喻嘉言. 尙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175. “昌按, 麻黃主散邪, 附子主溫經, 二者, 皆大力之藥也, 前證發熱脈沈, 則表裏俱急, 惟恐二物不勝其任, 更加細辛之辛溫, 取其爲少陰引經之藥, 而又有辛散之能, 以協贊二物, 共建奇功也, 云無裏證, 非是并脈沈嗜臥等證俱無也, 但無吐利躁煩嘔渴之證耳, 似此則表裏俱不見其急, 而麻黃附子二物, 尚恐其力之太過, 故不用細辛以助之, 而反用甘草以和之也.”

41) 喻嘉言. 尙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176. “凡治冬不藏精之溫證, 始發二三日間, 請決擇於斯二方焉.”

喻嘉言이 溫病의 병인을 “冬傷于寒”과 “冬不藏精”으로 나누고 또한 “冬不藏精”에 대해 溫經散邪의 治法을 쓴 것은 이후 일부 의가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溫病의 병인에 있어 “冬不藏精, 春必病溫”의 개념만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에 대해 溫經散邪의 治法이 적합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周揚俊이 그 대표적인 의가라 할 수 있는데, 그는 喻嘉言과 달리 溫病의 발생에 陰陽의 구분이 있지 않다고 보았으며, 溫病이 少陰에 伏하였다가 少陽으로 發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같은 관점은 이후 葉天士, 柳寶詒 등에 영향을 주면서 清代 溫病學說에서 “冬不藏精”에 의한 溫病을 설명하는 주된 학설로 자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먼저 周揚俊의 溫病學說 내의 이른바 “所伏者少陰也, 所發者少陽也”의 설을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周揚俊은 『溫熱暑疫全書』의 「春溫病論」에서 溫病의 발생에 陰陽의 구분이 있다는 喻嘉言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溫病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새롭게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喻嘉言은 이와 같이 논했지만, 내가 溫病에 陰陽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겨울에 溫氣가 있어 먼저 인체의 腠理를 열게 되면 寒氣가 이를 타고 침습하게 되니, 이른바 邪氣가 몰리는 곳은 그 氣가 반드시 虛하다는 것이며, 오직 精을 제대로 藏하지 못한 사람이어야 이렇게 虛한 것이다. 虛하면 寒이 그 經을 상하게 되는데, 그 經이 반드시 少陰經인 것은 少陰의 臟이 본래 虛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한 바가 본래 미약한데다 겨울에 大水의 습이 행하고 있어 그 權이 바야흐로 盛한 까닭에 미약한 邪氣가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니, 자신이 누울 자리에 어찌 다른 사람이 곤히 잠들게 두겠는가. 오직 그 生하려는 意를 막으면서 조금씩 精髓를 상하게 하다가, 봄이 되어 強木이 長하면 水가 이를 자양하기에 부족하게 되니, 봄이 되어 비로소 溫病으로 발하는 것이다. 木은 왕성한데 水는 부족하니 鬱한 바가 升發하면서 火氣가 타올라 溫病이 되는 것일 따름이며, 그 상하게 한 것은 寒이지만 병은 溫病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少陰에 伏

했다가 少陽으로 發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병은 반드시 陽에서만 발생할 뿐 陰에서 발생하는 것은 없으며, 약은 반드시 寒한 것을 써야 하고 熱한 약을 멀리해야 하므로 黃芩湯이 바로 그 주된 약이 되니, 喻嘉言이 溫病을 논하면서 이를 陰과 陽의 두 부류로 나누고 傷寒 三陰病에 쓰는 辛熱한 약을 활용한 것에 대해 나는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sup>42)</sup>

이상의 내용을 보면 周揚俊은 溫病이 반드시 陽에서만 발생할 뿐 陰에서 발생하는 것은 없다고 하였으며, 이는 喻嘉言이 溫病을 陰과 陽의 두 부류로 나누면서 傷寒의 三陰病에 쓰이는 辛熱한 性味の 처방을 사용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喻嘉言이 溫病에 傷寒 三陰病의 처방을 사용했다는 것은 곧 冬不藏精으로 溫病이 발병했다고 본 경우에 麻黃附子細辛湯 같은 처방을 사용한 것을 말하며, 周揚俊은 이를 비판하면서 溫病의 발병 과정을 새롭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周揚俊은 喻嘉言과 달리 사실상 “冬不藏精”만을 기초로 溫病의 발생을 설명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六氣와 질병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겨울에 寒邪가 인체에 침습하는 것은 흔히 殺厲之氣라 하는 것과 같은 심한 寒邪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거나 음식 등의 문제로 인해 체내의 기가 虛해져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sup>43)</sup> 이 같은 주장은

42) 周揚俊. 溫熱暑疫全書. 中國醫學大成4.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95. “嘉言之論如此, 予謂溫病無陰陽之分也, 何也. 冬有溫氣, 先開發人之腠理, 而寒得以襲之, 所謂邪之所湊, 其氣必虛, 惟不藏精之人而後虛也. 虛則寒傷其經, 經必少陰者, 以少陰臟本虛也. 然所傷原微, 且冬月大水當令, 其權方盛, 微邪不敢抗衡, 但臥榻之側, 豈容他人鼾睡. 惟有阻彼生意, 暗燼精髓, 至于春, 時強木長, 而水不足以供其資, 始則當春而溫, 木旺水虧, 所鬱升發, 火氣燔灼, 病溫而已矣. 其所傷者寒也, 所病者溫也, 所伏者少陰也, 所發者少陽也. 故病必有陽而無陰, 藥必用寒而遠熱, 黃芩湯其主治也, 則嘉言之論溫, 有陰有陽, 如傷寒三陰經可用辛熱者, 予曰, 否否, 不然也.”

43) 周揚俊. 溫熱暑疫全書. 中國醫學大成4.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224. “寒熱溫涼, 四氣遞運, 萬古不易, 人生其間, 感觸寒暑而病者, 皆其起居無時, 飲食不節, 氣虛體弱, 自行犯之, 非寒暑之過也, 然亦不過千百中之一二耳. 若以寒暑爲殺厲之氣, 觸之即病, 則人無類久矣, 豈天地人生自

그의 『溫熱暑疫全書』의 「疫病論」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疫病의 발생에 대해서는 疫氣라는 邪氣를 중심으로 보는 반면 溫病에 대해서는 체내의 正氣를 중심으로 보는 그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周揚俊은 결국 「傷寒例」 아래의 殺厲之氣로서의 寒邪의 개념을 부정하면서 “冬不藏精”으로 체내의 氣가 虛한 상태에서 겨울의 寒氣가 침습하게 될 뿐인 것으로 伏氣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겨울에 溫氣가 유행하면 腠理가 열리고 또 여기에 精도 虛해진 상태가 더해지면 寒氣가 침습하게 되는데, 이 때 寒氣는 본래 虛해져 있는 少陰의 臟으로 들어오게 되며 이후 봄이 되면 溫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寒氣가 들어온 후 바로 발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周揚俊은 보충적으로 설명하기를, 겨울에 溫氣가 유행하면서 腠理가 열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 인체가 寒氣를 받아들여서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寒氣 자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병을 일으키지 않고 少陰에 잠복하게 된다고 하였다.<sup>44)</sup> 少陰에 잠복한 寒氣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熱로 化하면서 腎水를 상하게 되며, 이후 봄이 되어 腠理가 열리고 陽氣가 밖으로 泄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生發하려는 木氣가 腎水의 자양을 받지 못하고 浮越하면서 溫病이 발생하게 된다.<sup>45)</sup>

또한 溫病이 少陽으로 發하는 것은 봄에 少陽의 氣가 행하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병이 少陰에서 비롯됨에도 仲景이 溫病을 太陽病에서 다룬 것은 太陽과 少陰이 서로 表裏가 되므로 太陽에서 熱이 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仲景이 溫病에는 惡寒이 없다고 한 것도 溫病에 表證이 없음을 말한 것으로서, 그 熱이 안으로부터 발출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周揚俊은 溫病을 다스리는 처방으로

黃芩湯을 제시하였는데, 黃芩湯은 본래 『傷寒論』에서 太陽과 少陽의 合病을 다스리는 처방으로 되어 있다<sup>46)</sup>. 그는 溫病이 少陽으로 發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지녔던 한편으로 이를 仲景이 말한 溫病 개념과 조화시키고자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부터 溫病의 발병은 少陽을 중심으로 하되 少陰으로부터 三陽으로 熱이 출하는 것에 따라 太陽과 少陽의 合病 또는 三陽合病의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게 되었다.<sup>47)</sup>

이상과 같은 周揚俊의 주장은 이후 葉天士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葉天士 역시 겨울에 精을 藏하지 못한 상태에서 寒邪가 少陰으로 들어와 봄이 되면 少陽으로 發하게 된다는 관점을 수용하였다. 잠복한 寒邪가 점차 熱로 化한 후 발출하는 것이므로 黃芩湯이 지니는 苦寒한 性味로 裏熱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곧 苦味로 堅陰의 작용을 발휘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sup>48)</sup>

### 3) “冬不藏精”과 相火의 관련성을 통한 해석

清代의 黃元御는 “冬不藏精，春必病溫”의 병기를 논함에 있어 相火를 중심에 두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冬傷于寒，春必病溫”에서 “冬傷于寒”이 “冬不藏精”의 變文일 뿐이라고 하였으며, 기존의 “冬傷于寒” 개념을 부정하면서 “冬不藏精”을 기초로 溫病의 발생을 논한다는 점에서는 周揚俊 등과 같지만 “冬不藏精”에 의한 溫病의 병기를 논하는 면에서는 다

然之道哉。至非其時而有其氣，謂之不正之氣則可。”

44) 周揚俊. 溫熱暑疫全書. 中國醫學大成4.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95. “因先被溫令開泄，似乎喜寒，且所傷不甚，故不即病，而潛伏于少陰也.”

45) 周揚俊. 溫熱暑疫全書. 中國醫學大成4.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95. “內鬱既久，已自成熟，至行春令，開發腠理，陽氣外泄，腎水內虧，至春三月，而木當生發，孰爲鼓舞，孰爲滋養，生化之源既絕，木何賴以生乎。身之所存者溫也，時強木長，故爲溫病.”

46) 『傷寒論』의 太陽病篇에서 “太陽與少陽合病，自下利者，與黃芩湯.”이라 하였다.

47) 周揚俊. 溫熱暑疫全書. 中國醫學大成4.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95. “彼少陽行春令也，然既從少陰矣，何仲景專云太陽病，蓋太陽與少陰相表裏也，故以發熱爲太陽也，曰不惡寒，明無表症也，則其熱自內出，無外邪鬱之也，然則仲景復言太少合病者，見發熱不惡寒，或兼有耳聾脇滿證也，言三陽合病者，以脈大屬陽明，而多眠則熱聚于膽也，不言法者，總以黃芩湯爲主治也.”

48) 王孟英. 溫熱經緯·葉香巖三時伏氣外感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97. “春溫一證，由冬令收藏未固，昔人以冬寒內伏，藏于少陰，入春發于少陽，以春木內應肝膽也。寒邪深伏，已經化熱，昔賢以黃芩湯爲主方，苦寒直清裏熱，熱伏于陰，苦味堅陰，乃正治也。知溫邪忌散，不與暴感門同法.”

른 관점을 보였다. 이는 黃元御가 “冬不藏精”에 의한 溫病의 발생을 相火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했기 때문인데, 즉 겨울에 藏精이 되지 못하는 것이 相火의 炎上을 초래하며 이 相火가 寒水の 令氣를 상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冬傷于寒”은 겨울에 寒邪에 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체내의 寒水の 氣가 상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相火로 인한 內熱은 이후 봄여름이 되면 더욱 盛해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風露 등의 침습을 받게 되면 內熱이 더욱 鬱閉되면서 결국 溫病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sup>49)</sup>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黃元御는 溫病의 증을 기본적으로 『素問·熱論』에서 제시한 三陰三陽의 증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는데, 다만 三陰三陽 중의 어느 經에 속하든 發熱이 있을 뿐 惡寒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太陽溫病의 경우 發熱, 頭項痛, 腰脊強 등의 증상과 함께 口渴이 있게 되며, 이에 대해 涼金補水의 治法에 속하는 玄霜丹을 제시하였다<sup>50)</sup>. 黃元御의 논의는 “冬不藏精”에 따른 寒邪의 침습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冬不藏精, 春必病溫”에 대한 喻嘉言 이래의 논의와 다소 다른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 4) 寒邪와 腎氣의 상관성을 통한 해석: 喻嘉言과 周揚俊의 절충

清代 말의 柳寶詒는 기본적으로 周揚俊과 같은 관점을 지닌 의가로서, “冬不藏精, 春必病溫”에 기초한 溫病학설을 주장하였다. 그 역시 「傷寒例」의 설을 부정하면서 “冬不藏精”을 기초로 “冬傷于寒, 春必病溫”을 해석했던 것이며, 이는 곧 精을 藏하지

못하여 虛해진 상태에서 寒邪가 少陰에 잠복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한편 그는 溫病의 발병양상과 관련하여 腎氣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언급했는데, 즉 腎氣가 크게 虛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봄이 되어 寒邪를 少陰으로부터 太陽으로 내몰면서 병이 가볍게 나타나게 되지만, 腎氣가 크게 虛해진 상태라면 寒邪가 少陰에 계속 머문 채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므로 병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 것이다.<sup>51)</sup> 이는 사실상 寒邪가 少陰에 잠복한 상태에서 腎陽이 어느 정도로 虛해진 상태인지의 여부가 溫病의 발병 양상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伏氣溫病의 발병을 三陽의 經證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다. 寒邪는 少陰에 잠복한 이후 봄의 陽氣의 升發을 따라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는 腎氣가 動하면서 寒邪를 熱로 化하게 하여 발출시키는 작용이 함께 가해진다고 본 것이다. 만약 腎氣가 虛해진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邪氣가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三陽의 經證이 발생한다고 보았는데<sup>52)</sup>, 이는 비록 表證이 나타난다 해도 裏熱이 먼저 盛한 것이므로 裏熱을 清泄하면서 邪氣를 透達시키는 治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黃芩湯에 豆豉와 元參을 가한 것을 그 기본 처방으로 제시하였다.<sup>53)</sup> 반면에 腎陽이 虛해진 정도가 심하다면 少陰에 잠복되어 있는 邪氣가 半化半伏의 상태로 陰分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외부에 熱象이 나타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邪氣가 여전히 少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때 熱이 厥陰을 범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선불리 清泄의 治法

49) 黃元御. 傷寒懸解.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9. “冬不藏精, 陽氣疏泄, 天當極寒之際, 人行盛暑之令, 相火炎蒸, 精液消亡, 是謂冬傷于寒. 此緣冬時腎精不秘, 陽飛火騰, 傷其寒水熱藏之令氣, 非感冒寒邪, 冬時不病也. 一交春夏, 木火司氣, 內熱愈增, 偶因風露侵傷, 鬱其內熱, 則爲溫病. 病因外感而根原內傷, 感在經絡而傷在臟腑, 故病傳三陽即內連三陽之腑, 病傳三陰即內連三陰之臟. 在臟在腑, 但熱無寒, 以其原有內熱, 因表鬱而裏發也. 六日經盡, 則臟腑經絡表裏皆熱, 故曰三陰三陽, 五臟六腑, 皆受病也.”

50) 玄霜丹은 浮萍, 麥門冬, 玄參, 牡丹皮, 芍藥, 甘草, 生薑, 大棗로 구성된다.

51) 柳寶詒. 溫熱逢源. 中國醫學大成4.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07. “伏氣發溫之病, 惟冬傷于寒故病溫, 惟冬不藏精故受寒. 其所受之寒, 無不伏于少陰, 斷無伏于肌膚之理. 其腎氣未至大虛者, 尙能鼓邪外達, 則由少陰而達太陽, 病勢淺而輕. 若腎虛不能托邪, 則伏于臟而不得外出, 病即深而重.”

52) 柳寶詒. 溫熱逢源. 中國醫學大成4.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p.633-634. “寒邪潛伏少陰, 得陽氣鼓動而化熱, 苟腎氣不至虛餒, 則邪不能容而外達. 其最順者, 邪不留戀于陰, 而逕出于三陽. 則見三陽經證, ……”

53) 柳寶詒. 溫熱逢源. 中國醫學大成4.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33. “當初起時, 其外達之路, 或出三陽, 或由肺胃, 尙未有定程, 其邪仍在少陰界內, …… 愚意不若用黃芩湯加豆豉元參, 爲至當不易之法.”

을 쓰는 것은 邪氣를 더욱 정체시킬 위험이 있고, 반대로 溫化의 治法을 쓰는 것 역시 안으로는 陰液을 고갈시키고 밖으로는 邪熱을 몽폐할 위험이 있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柳寶誥는 仲景의 少陰病 治法에서 麻黃附子細辛湯, 麻黃附子甘草湯의 법을 따라 邪氣를 透達하는 한편, 生地黃 등을 가하여 育陰扶正의 효능을 추가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54)</sup>

이 같은 설명은 寒邪가 少陰에 잠복한 후 熱化하는 과정을 논함에 있어 계절적 요인 외에 腎氣의 鼓動이라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통해 喻嘉言과 周揚俊의 설을 절충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 고찰

“冬不藏精, 春必病溫”은 본래 『內經』에 없었던 것이지만 역대 의가들 중에는 이를 『內經』의 내용이라 하며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사실 『內經』 본래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관련 내용에 대한 해석일 뿐이었던 것이 본래의 내용으로 언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素問·金匱真言論』에서 볼 수 있는 “藏于精者, 春不病溫”이란 부분에 대해 王冰이 이를 겨울철의 養生과 관련시켜 해석한 것이나 楊上善이 『太素』에서 “冬不按蹻”를 겨울철의 傷寒과 연결시켜 논한 것 등은 이후 “冬不藏精, 春必病溫”이란 개념이 형성되게 된 초보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內經』의 내용에 대한 이런 해석들은 겨울에 精을 藏하지 못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이후 溫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겨울에 寒邪에 쉽게 상

하는 조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此事難知』에서는 “冬傷于寒, 春必病溫”을 논하면서 王冰의 注解와 함께 겨울철의 少陰不藏 등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였고, 이는 기존의 『內經』 주해를 바탕으로 溫病 발생의 기전을 새롭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즉 이로부터 도출된 “冬不藏精, 春必病溫”의 논의는 “冬不藏精” 그 자체를 溫病의 병인으로 부각시킨 것이라기보다는 “冬傷于寒, 春必病溫”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의 해석이란 측면에서 그 구체적인 의의를 지녔던 것인 셈이다.

“冬傷于寒, 春必病溫”은 『素問』의 「生氣通天論」과 「陰陽應象大論」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념으로서, 『傷寒論』의 「傷寒例」에서는 이런 개념과 관련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겨울에 寒邪의 침습이 있을 후 바로 발병하지 않는다면 寒邪가 肌膚에 藏하였다가 이후 봄이나 여름에 발병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冬傷于寒, 春必病溫”과 관련하여 少陰不藏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溫病의 발병과 관련하여 寒邪를 발병의 중심적인 요인으로 보지 않고 少陰不藏에 의한 腎水의 부족을 더 주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傷寒例」에서 寒毒이라 표현할 정도의 寒邪가 아니라 해도 그 伏氣에 의한 溫病의 발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로부터 “冬傷于寒, 春必病溫”에 대해서는 결국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게 되었고, 의가들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이 둘 모두를 긍정하거나 또는 기존의 관점을 부정하면서 “冬不藏精, 春必病溫”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冬不藏精, 春必病溫”이 “冬傷于寒, 春必病溫”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만큼 그것은 겨울철의 少陰不藏과 寒邪의 침습 및 이후의 발병의 문제들과 관련된 새로운 관점들을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冬不藏精, 春必病溫”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일단 “冬傷于寒, 春必病溫”을 少陰不藏에 기초하여 새롭게 이해한 『此事難知』의 경우에는 “冬傷于寒”에 대한 해석임에도 寒邪에 대한 관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54) 柳寶誥. 溫熱逢源. 中國醫學大成4.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38. “設其人腎陽虛餒, 則邪氣冰伏, 每有半化半伏, 欲達不達之症. 如外面熱象熾盛, 或已見昏譫, 痙厥之候, 而少陰之伏邪尚有未經化熱, 仍留滯于陰分者. 此時就熱象論, 已有熱擾厥陰之險, 清泄之藥不容緩, 而內伏之邪, 又以腎氣內餒, 不能化達, 設專用涼泄, 則邪氣愈滯, 設用溫化, 又屬抱薪救火. 展轉之間, 內則陰液乾涸, 外則邪熱蒙閉. 遲之一二日, 卽不可挽救矣. 此等症情, 在溫病中, 爲最險重之候. 即使竭力挽回, 亦屬冒險圖功. 治病者, 必須豫爲道破, 庶免疑謗. 此證邪伏少陰, 喻氏仿仲景少陰病治例, 用麻黃附子細辛湯及麻黃附子甘草湯兩方以透邪, 增入生地以育陰扶正, 其用意頗爲切當.”

않으며, 이는 「傷寒例」에서 寒邪가 肌膚에 藏하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점이다. 이후 李東垣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朱丹溪의 논의에도 寒邪의 개념은 등장하지 않는데, 朱丹溪는 그의 陽有餘陰不足論에서 “冬不藏精, 春必病溫”을 언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滋陰降火의 治法을 말한 것은 寒邪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吳又可의 경우는 “冬不藏精, 春必病溫”이 후대에 등장한 개념으로서 邪氣에 의한 질병의 발생을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邪氣가 虛를 타고 들어온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해도 그 邪氣가 어떤 속성을 지닌 것인지는 모호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sup>55)</sup> 반면에 喻嘉言 이후로는 “冬不藏精, 春必病溫”과 관련하여 寒邪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는데, 喻嘉言은 “冬不藏精”으로 인해 寒邪가 少陰에 잠복한다고 하였고, 喻嘉言을 비판한 周揚俊 등도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관점을 지녔다.

喻嘉言과 周揚俊은 사실 모두 溫病과 관련하여 李東垣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冬不藏精”의 문제와 관련하여 『此事難知』에서 “冬傷于寒, 春必病溫”을 해석한 내용의 영향을 받은 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喻嘉言은 李東垣이 冬溫과 春溫 각각에 대해 뛰어난 인식을 지녔다고 평가함으로써 李東垣의 관점을 긍정하였을 뿐 李東垣의 논의에 寒邪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지는 않은 반면<sup>56)</sup>, 周揚俊은 李東垣이 말한 것은 冬溫일 뿐 春溫을 설명하는 논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春溫을 말하기에는 寒邪의 잠복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본 것이다.<sup>57)</sup> 즉 喻嘉言

과 周揚俊은 “冬不藏精, 春必病溫”의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모두 李東垣의 영향을 받은 면이 있지만, 이들은 “冬不藏精”에 더하여 寒邪의 침습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을 느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喻嘉言과 이후의 周揚俊, 柳寶詒 등은 모두 “冬不藏精, 春必病溫”을 말하면서 寒邪가 少陰에 잠복하게 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이며, 伏氣로서의 寒邪에 대해 喻嘉言이 「傷寒例」이래의 관점을 여전히 긍정하는 한편으로 少陰不藏에 따라 寒邪가 少陰에 伏하게 된다는 관점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周揚俊, 柳寶詒는 「傷寒例」의 관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寒邪가 少陰에 잠복하게 된다는 관점만을 말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이 清代 초에 喻嘉言과 周揚俊 등이 “冬不藏精, 春必病溫”에 의한 邪伏少陰의 溫病學說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이들의 주장은 吳又可, 吳鞠通 등의 溫病學說에 가려져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吳鞠通의 『溫病條辨』에는 “冬不藏精, 春必病溫”이 輕翹散의 方論에서 溫病 발생의 한 보조적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인데, 즉 溫病을 앓게 되는 사람은 精氣가 먼저 虛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정도이다.<sup>58)</sup> 吳鞠通은 藏精의 문제가 溫病만이 아니라 모든 병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冬不藏精, 春必病溫”에 대한 喻嘉言의 논의가 지나친 비약에 불과하다고 보았다.<sup>59)</sup> 그러나 清代 말에 이르러 柳寶詒는 “冬不藏

而感之即病者也, 非伏寒也, 非變也. 不然, 必無冬溫一證也而後可. 既有冬溫, 則有是氣, 已有是證矣. 由其言以悉冬溫, 便可垂論不磨, 若論春溫, 不免貽味千古矣. 經曰, 逆冬氣則少陰不藏, 不藏則寒邪得而入之, 傷于肌膚, 伏于骨髓. 始知冬爲藏精之時, 惟逆冬氣, 遂使少陰之經氣不閉, 復遭非時之暖, 致令開泄, 忽然嚴寒驟返, 不免受傷, 故受傷者, 仍是寒邪也.”

55) 吳又可. 溫疫論.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696. “或指冬不藏精, 春必病溫, 此亦漢人所撰, 但言斫傷致病, 不言因邪致病, 即使寓意邪氣乘虛, 實不言何氣使然.”

56) 喻嘉言. 尚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pp.214-215. “東垣不解傷寒正治. 蓋一生精神在內傷也. 乃從內經深入至理, 發出冬溫春溫二義, 真千百年之一人也. 云冬傷於寒者, 冬行春令也, 當寒而溫, 火盛而水虧矣. ……”

57) 周揚俊. 溫熱暑疫全書. 中國醫學大成4.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95. “如李明之所云, 冬傷于寒者, 冬行春令也. 當冬而溫, 火勝而水虧矣. …… 然由明之所言, 是冬溫

58) 吳鞠通. 溫病條辨.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4. p.23. “合而論之, 經謂冬不藏精, 春必溫病, 又謂藏于精者, 春不病溫, 又謂病溫虛甚死, 可見病溫者, 精氣先虛.”

59) 吳鞠通. 溫病條辨.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p.4. “蓋能藏精者一切病患皆可却, 豈獨溫病爲然哉! 『金匱』謂五臟元真通暢, 人即安和是也. 何喻氏不明此理, 將冬傷于寒作一大扇文字, 將不藏精又作一大扇文字, 將不藏精而傷于寒, 又總作一大扇文字, 勉強割裂『傷寒論』原文以實之, 未免有過慮則鑿之弊.”

精, 春必病溫”의 개념을 몰라서는 안 됨을 다시 새롭게 주장했던 것이며<sup>60)</sup>, 이는 이른바 “溫邪上受”에 의한 新感의 溫病과 아울러 伏氣에 의한 溫病 역시 중시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 5. 결론

“冬不藏精, 春必病溫”은 본래 『內經』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만 다수 의가들에 의해 『內經』의 설로 인용되면서 溫病學說의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 개념은 특히 喻嘉言에 의해 구체적인 治法까지를 포괄하는 임상이론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冬不藏精, 春必病溫”은 겨울에 精이 藏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寒邪가 침습하여 少陰에 잠복했다가 봄이 되어 발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寒邪란 『傷寒論』의 「傷寒例」에서 ‘殺厲之氣’라 표현한 것과 같은 寒邪를 말한 것이 아니며, 精이 虛함으로 인해 寒氣가 쉽게 침습하게 된다는 정도의 의미이다. 이와 같이 寒邪의 침습이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冬不藏精, 春必病溫”의 논의는 단순히 “冬不藏精” 그 자체에 의한 溫病의 발생을 말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藏于精者, 春不病溫”이 변화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冬傷于寒, 春必病溫”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면이 크다.

『內經』에서 말한 “冬傷于寒, 春必病溫”은 본래 겨울에 寒邪의 침습이 있을 후 봄이 되어 발병하게 됨을 말한 것으로서, 이 경우의 寒邪는 본래 寒毒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강한 성격의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李東垣은 “冬傷于寒, 春必病溫”을 少陰不藏 등의 개념을 기초로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藏于精者, 春不病溫” 및 “冬傷于寒, 春必病溫”에 대한 王冰, 楊上善 등의 注解를 참고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冬傷于寒, 春必

病溫”은 “冬不藏精”을 기초로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李東垣이 “冬傷于寒, 春必病溫”에 대해 논하면서 寒邪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그 이해에 다소 모호함을 남겼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朱丹溪는 기존의 “冬傷于寒, 春必病溫”과 더불어 “冬不藏精, 春必病溫”을 溫病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대등하게 다루었으며, 여기서 “冬不藏精, 春必病溫”은 기본적으로 寒邪와 무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冬不藏精, 春必病溫”은 그 등장 초기에 寒邪와의 관련성이 모호한 상태로 기술된 면이 있었지만, 이후 喻嘉言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溫病學說에 편입된 후로는 겨울철의 寒邪에 의한 伏氣溫病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喻嘉言은 “冬不藏精”으로 인해 寒邪가 少陰에 잠복했다가 이후 봄이 되어 太陽으로 發하면서 溫病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麻黃附子細辛湯을 사용하는 등의 溫經散邪의 治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周揚俊은 喻嘉言의 溫經散邪의 治法을 비판하면서 寒邪가 少陰에 잠복한 후 熱化했다가 봄이 되면 少陽으로 發하게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黃芩湯을 그 주된 처방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柳寶詒는 喻嘉言과 周揚俊의 상반된 주장을 절충한 의가로 볼 수 있는데, 喻嘉言과 周揚俊의 治法 가운데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腎氣가 虛해진 정도의 차이에 따른 문제라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冬不藏精, 春必病溫”의 설은 기존의 伏氣學說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점의 설로 제기되었고, 新感溫病의 설이 溫病學說의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伏氣溫病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9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References

1. 江順奎. “冬傷于寒”非“冬不藏精”互文. 中醫雜

60) 柳寶詒. 溫熱逢源. 中國醫學大成4.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38. “近日醫家, 不囿于吳又可幕原之說, 即泥于吳鞠通三焦之論, 而絕不知有少陰伏邪隨經發病之理. 故遇此等證, 便覺毫無把握, 輕者遷延致重, 重者無法挽救, 近年所見不少矣, 哀哉!”

- 誌. 2008. 49(12).
2. 郭雍. 傷寒補亡論.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1.
  3. 柳寶詒. 溫熱逢源. 中國醫學大成4.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4. 臨證指南醫案.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58.
  5. 龐安時. 傷寒總病論.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0.
  6. 成無己. 注解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7. 岳妍. 再論“冬傷于寒, 春必病溫”與“冬不藏精, 春必病溫”.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0. 16(9).
  8.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學苑出版社.
  9. 吳鞠通. 溫病條辨.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6.
  10. 吳又可. 溫疫論.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11. 王孟英. 溫熱經緯.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12.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04.
  13. 王叔和. 脈經.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6.
  14. 王好古. 此事難知.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15. 喻嘉言. 尚論後篇.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16. 張景岳. 質疑錄.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7. 曹東義. 中醫外感熱病學史.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18.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19. 朱丹溪.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20. 朱丹溪. 丹溪治法心要.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21. 周揚俊. 溫熱暑疫全書. 中國醫學大成4.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22. 黃元御. 傷寒懸解.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